

王好古의 陰證學說에 대한 研究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韓醫學科 醫史學教室
趙炳日 · 金容辰*

The Research of Wang HaoGu's Eum Syndrom Theor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aejeon University
Cho, Byung-II·Kim, Yong-Jin

Eum Syndrom include symptoms which is because by the cold things and by the infection of SamEum of TaeEum, SoEum, GualEum in Treatise On Exogenous Febrile Diseases(傷寒論). After Wang HoGo, many medical people had proceed the research of Eum Syndrom, but recently, we have almost never or no nothing research about that. So, I want to make modern base of Eum syndrom, and researched mainly for the 『YinZhengLueLi』. That can be summarized like below.

Eum Syndrom shows firstly red face, tremor, waist-and-leg heaviness, lastly body heaviness, fatigue, narcolepsy, congestion of the pupils because of from exogenous attack of wind-cold, impairment of spleen due to Cold things, and dew and mist and rain and damp's invasion by mouth and nose, greedy of sexual desire. So, in the diagnosis of Eum Syndrom, we have to look over precisely the color and pulse, especially, by pulse.

We can know that, he used the prescription which are have heating kidney function, Byuklyuksan, Jungyangsan, Huahamsan, Huiyangdan, Baneumdan etc, and the prescription which are have strengthening spleen and kidney, Bujasan, Yukgyesan, Bakchulsan etc. So, we can know that he was very interested in deficiency and cold of kidney's function. While, he newly made the prescriptions of Sinchultang, Bakchultang, Huanggitang, Jujunghuan, and he used various prescriptions.

Key words : Wang HaoGu, Eum Syndrom Theory, 『YinZhengLueLi』.

I. 緒 論

韓醫學의 理論은 金元時代에 와서 많은 발전을 하게 되었는데, 특히 病機理論部分에 있어서 六氣病機

를 주장하는 學說과 臟腑病機를 주장하는 學說로 나누어져서 醫學流派가 발생하는 계기가 되었다.

六氣病機學派는 劉河間이 주장한 病機는 五運六氣에 귀속되는데 주로 火熱證의 病機로 治療에 임하였던 것으로 張從正, 朱丹溪, 穆子昭, 荊山浮屠 등이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臟腑病機學派는 張潔古가

* 교신저자 : 金容辰,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042)280-2626. king@dju.ac.kr.

주장한 病機는 臟腑證候의 寒熱虛實로 病機를 설명하고 治療를 하였던 것으로 李東垣, 王好古, 羅天益 등이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王好古는 이러한 金元時期에 살았던 사람으로 字는 進之이고, 號는 海藏老人이며, 著書로는 『醫壘元戎』, 『陰證略例』, 『湯液本草』 및 『此事難知』 등이 있다¹⁾.

그는 『內經』에 정통하고 仲景을 깊이 연구하였으며 潔古와 東垣의 학문을 계승 받아 發展시켰고 자신의 豐富한 臨床實踐과 결합하여 陰證學說을 창립하였으며, 雜證도 六經의 範圍에 歸納시켜 辨證論治하여야 한다고 하여 後世에 相當한 影響을 끼쳤다.

陰證은 內傷生冷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證候와 傷寒에서 太陰, 少陰, 厥陰의 三經이 內感되어 나타나는 證候를 포괄하여 말하는 것인데, 王好古는 風寒이 肌表를 침습하여 導致된 陰寒病證 외에 飲食冷物과 誤服涼藥 및 口鼻로부터 霧濕의 氣를 흡입하여 발생된 內感陰證에 대한 내용도 補充하여 陰證의 범주를 크게 확대하였다.

陰證에 대하여 王好古 이후 많은 醫家들에 의하여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현대에서의 陰證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筆者는 王好古의 陰證에 대하여 현대적인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陰證略例』를 중심으로 考察하여 이를 보고하고자 한다.

II. 本論

張仲景의 『傷寒論』이 세상에 나타난 후 많은 醫家들이 이에 대하여 깊은 研究를 하였다. 특히 王好古는 풍부한 臨床經驗을 활용하여 傷寒陰證의 探究에 대하여 重視하여 『陰證略例·發明仲景活人』에서 “傷寒古今爲一大病이오 陰證一節은 害人爲尤速이라”²⁾고 하면서, 前賢들의 陰證과 有關한 論述을 集大成하

고 아울러 자신의 견해를 덧붙여서 『陰證略例』를 저술하게 되었다. 이러한 그의 陰證에 대한 見解는 獨特하고 남다른 學派가 형성되어 후세의 높은 評價를 받게 되었으며 影響도 컸다.

1. 陰證學說의 淵源

王好古가 創立한 陰證學說의 根源은 비록 『素問·調經論』의 “陽虛則外寒하고 陰虛則內熱하며 陽盛則外熱하고 陰盛則內寒이라(陽虛하면 外寒하고 陰虛하면 內熱하며 陽盛하면 外熱하고 陰盛하면 內寒한다.)”³⁾는 陰證에 關聯된 經典의인 理論이지만 가장 主要한 것은 스승인 張元素와 李東垣의 影響을 받은 것이다. 그는 張元素의 臟腑辨證學說과 李東垣의 脾胃內傷理論의 啟發과 影響을 받아 臟腑虛損과 傷寒三陰虛證을 중요시 여겼다. 王好古는 “潔古 既有三陰可下之法也하면 必有三陰可補之法이라(三陰可下之法이 있으면 반드시 三陰可補之法이 있을 것이다.)”⁴⁾라고 주장하였고, 또한 李東垣이 飲食失節과 勞倦傷脾로 인하여 발생한 陰火熾盛의 病變을 중요시 하였지만 內傷冷物로 인하여 발생된 陰證의 病變에 대하여서는 자세하지 못하였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王好古는 三陰陽虛에 대한 研究를 重要視하였고 비로소 ‘陰證學說’의 思想的 기초를 닦아 놓게 되었다.

陰證學說의 두 번째 근거는 『傷寒論』에 대한 깊은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즉 많은 사람들이 『傷寒論』의 外感에 대하여 상세하게 연구했지만 內傷에 대해서는 소홀하였고, 實證을 중시하였으나 虛證을 중시하지 않았고, 三陽을 중시하였지만 三陰을 중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王好古는 臨床에 있어서 陰證의 危害가 더욱 크고 陽證보다 辨治하는데 있어서 더욱 힘든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傷寒은 人之大疾也오 其候最急 而陰證毒爲尤慘하니 陽證則易辨而易治하고 陰證則難辨重主而難治라(傷寒은 사람에게 있어서 커다란 疾病이고 그 證候가 가장 급한 것이고 陰證毒은

1) 洪元植, 尹暢烈. 新編中國醫學史. 大田. 周珉出版社. 2004. p. 224.

2) 胡國臣. 王好古醫學全書-陰證略例.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4. p. 107.

3) 金達鎬, 李鍾馨. 補注注解黃帝內經素問. 서울. 醫聖堂. 2001. p. 248.

4) 胡國臣. 王好古醫學全書-陰證略例.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4. p. 77.

더욱 극심하니 陽證은 쉽게 辨證하여 쉽게 치료가 되는 것이고, 陰證은 辨證하기도 어렵고 治療되기도 어렵다.)”⁵⁾고 하였다. 그 當時 醫學界는 劉河間의 ‘火熱論’의 影響을 받아 熱病에 다만 熱로 생각하여 治療할 줄만 알고 寒으로 생각하여 治療하면 안 된다는 學說이 주류를 이루었으므로 대부분 寒涼한 藥物을 사용하였다. 비록 그 당시 『局方』의 溫燥藥을 濫用한 錯誤를 고쳤으나, 寒涼藥을 過度하게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폐단이 되었다. 따라서 王好古는 陰證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研究하여 溫補를 提唱하였는데 이것은 河間以後의 醫家들이 寒涼藥을 過用하는 錯誤를 糾正한 것이다.

그러므로 王好古는 『內經』과 張仲景, 王叔和, 朱肱, 許叔微, 韓祗和, 成無己, 張元素 등 前代 醫家들의 陰證에 관련된 論述을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陰證에 대하여 闡發하고 陰證의 發病原因과 診斷鑒別 및 治療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분석하여 자신의 陰證學說을 창립하게 된 것이다.

2. 陰證의 範疇

王好古가 確立한 陰證은 傷寒에서 太陰, 少陰, 厥陰의 三經이 內感되어 나타나는 證候를 말한다. 예를 들면 『陰證略例·海臧老人內傷三陰例』에서 “若飲冷內傷하면 雖先損胃라(만약 찬 것을 먹어서 內傷하게 되면 먼저 脾胃를 損傷하게 된다.)”⁶⁾고 하였고 그 病變은 三陰經의 각기 다른 症狀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若面青或黑하고 脈이 浮沉不一하고 弦而弱하면 傷在厥陰肝之經也라(만약 面青或黑하고 脈浮沉不一하고 弦而弱하면 厥陰肝經이 損傷된 것이다.)”⁷⁾고 하며 또한 四肢厥逆, 爪甲青, 혹은 自汗不止 등 證이 나타날 수 있고, “若面紅或赤하고 或紅赤하고 俱見脈浮沉不一하니 細而微者는 傷在少陰腎之經也라(만약 面紅

或赤하고 或紅赤하고 脈이 浮沉不一하여 여러 가지로 나타나니 細而微하면 少陰腎經이 損傷된 것이다.)”⁸⁾고 하며 또한 默默不欲語, 但欲寐, 혹은 四肢厥逆, 혹은 身表冷如冰石 등 證이 나타날 수 있고, “若面黃或潔하고 或黃潔俱見하고 脈浮沉不一하니 緩而遲者는 傷在太陰脾之經也라(만약 面黃或潔하고 或黃潔俱見하고 脈이 浮沉不一하니 緩而遲하면 太陰脾經이 損傷된 것이다.)”⁹⁾고 하며 또한 手足自溫, 自利不渴 등 證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 王好古가 ‘三陰可補之法’과 治療와 用藥에 있어서 溫養을 주장한 것으로 보아 王好古가 주로 論述한 것이 三陰陽虛證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內感陰證도 外感을 겸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예를 들면 內傷飲冷에 外感風寒을 겸할 때도 있고, 露霧雨濕도 同時에 內外로 침입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관하여 王好古는 “有單衣而感於外者하고 有空腹而感於內者하고 有單衣空腹而內外俱感者라(옷을 춥게 입어 外感된 境遇가 있고, 空腹을 말미암아 內傷된 경우도 있고, 옷을 춥게 입으며 공복으로 말미암아 內外俱感한 경우가 있다.)”¹⁰⁾고 하였고 “虛人內已伏陰하고 外又感受하면 則內外俱病이라(虛人이 이미 內에 伏陰이 있고 外에 또 感受하면 內外가 모두 病이 든 것이다.)”¹¹⁾고 하였다. 王好古는 風寒이 肌表를 침습하여 導致된 陰寒病證 외에 飲食冷物과 誤服涼藥 및 口鼻로부터 霧濕의 氣를 흡입하여 발생된 內感陰證에 대한 내용도 補充하여 陰證의 범주를 크게 확대하였다.

3. 病因

王好古는 陰證을 일으키는 病因에는 內因과 外因 및 不內外因이 있다고 하였다. 外因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外感風寒이라고 하였다.

5) 胡國臣. 王好古醫學全書-陰證略例.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4. p. 72.
6) 胡國臣. 王好古醫學全書-陰證略例.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4. p. 77.
7) 胡國臣. 王好古醫學全書-陰證略例.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4. p. 77.

8) 胡國臣. 王好古醫學全書-陰證略例.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4. p. 77.
9) 胡國臣. 王好古醫學全書-陰證略例.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4. p. 77.
10) 胡國臣. 王好古醫學全書-陰證略例.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4. p. 80.
11) 胡國臣. 王好古醫學全書-陰證略例.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4. p. 80.

風寒之邪는 皮毛를 통하여 表에서 裏로 侵入되고 三陽에서 三陰으로 傳入되며, 또는 寒邪가 三陰에 直中하여 傷寒外感陰證이 발생될 수 있다고 하였다. 둘째는 冷物로 傷脾하여 內感陰證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外感陰證에 관하여 『傷寒論』과 歷代醫家들은 이미 詳述하였으며 王好古는 前人들이 未備한 곳에 대하여 發揮하고 중점적으로 內感陰證에 대하여 闡發하였다.

그는 飲食生冷, 過服涼藥, 口鼻로부터 霧露雨濕의 氣를 흡입하게 되어 생긴 ‘冷物’들이 모두 口鼻를 통하여 腹으로 들어가서 脾胃陽氣를 損傷하게 하여 陰證을 발생하게 한다고 주장하였다. 口鼻를 통하여 邪氣가 人體에 侵犯한다는 주장은 後世 溫病學派 醫家들이 주장한 溫病의 邪氣가 口鼻를 통하여 侵入한다는 관점에 啓示를 하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霧露雨濕이 사람의 肌表를 침범하여 致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霧露雨濕이 飲冷과 같이 모두 濁邪에 속하고, 病邪의 性質과 口鼻를 통하는 經路와 脈證도 극히 유사하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그는 “霧露入腹하면 雖不飲冷이라도 與飲冷同內傷飲冷하니 雖非霧露라도 與霧露로 同이라(霧露入腹하면 비록 飲冷하지 않더라도 찬것을 먹어서 생기는 內傷과 같게 되니 비록 霧露가 아니더라도 霧露 더불어 같은 것이다.)”¹²⁾고 하였는데 이것은 실은 ‘寒邪直中三陰’之說에 대한 發揮이고 또한 『內經』에 “天之邪氣에 感則客人五臟이라(하늘의 邪氣에 感하면 사람의 五臟에 병이 든다.)”¹³⁾고 한 내용에 대한 설명이라고 말할 수 있다.

不內外因은 房室縱欲이고 이는 陽氣를 耗竭한다고 하였다. 王好古는 陰證에 있어서 內因의 작용을 더욱 중요시하였다. 그는 陰證은 外感이든 아니면 內傷이든 관계없이 外因은 조건에 불과한 것이고 內因인 ‘本氣虛’와 ‘內已伏陰’이 主要한 關鍵이라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重而不可治者는 以其虛人이니 內已伏陰하고 外又感寒하여 內外俱病하니 所以不可治

也라(거듭하되 治療되지 않는 경우는 그 사람이 虛하기 때문이니 內에 이미 伏陰이 있고 外에 또 感寒하여 內外가 모두 病이 든 것이니 治療하지 못하게 된다.)”¹⁴⁾고 하였다. 이것은 外感寒과 內飲冷이 모두 外在의인 條件이고 人本氣의 虛實이 內在의인 根據라는 것을 설명한 것이다. 만약 사람의 本氣가 實하면 비록 感寒飲冷하였더라도 發病하지 않으며, 사람의 本氣가 虛하면 感寒飲冷이 심하지 않고 혹은 感寒하지 않았고 또는 飲冷하지 않았더라도 여전히 陰證이 발생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王好古가 말하는 ‘人本氣虛實’은 주로 少陰腎 혹은 太陰脾와 關聯이 있다. 그는 『活人書』에서 “本因腎氣虛寒하고 或因冷物傷脾하니 外感風寒하고 內既伏陰하며 外又感寒하고 或先外寒而伏陰하고 內外皆陰하면 則陽氣不守라(본래 腎氣虛寒 또는 冷物傷脾로 인한 것이니 여기에 外感風寒하고 內에 이미 伏陰이 있으며 外에 다시 感寒하고 或은 먼저 外寒이 있고 다시 伏陰이 있어 內外가 모두 陰이 되면 陽氣를 지키지 못하게 된다.)”¹⁵⁾고 한 말을 인용하였는데 그중에서 특히 腎虛의 作用을 더욱 중시하여 사람의 陽氣는 모두 腎에 저장된다고 하였으며, 腎은 全身의 本이고 만약 腎陽이 充盛하면 冷物로 傷脾하거나 혹은 風寒外傷이 있다고 하더라도 腎陽은 陰寒邪氣를 점차적으로 사라지게 하여 發病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4. 病機

王好古는 仲景의 傷寒三陰證治에 대한 分析을 바탕으로 陰證의 病機를 論述하였다. ‘內傷三陰’의 病機는 실제로 ‘元陽中脫’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元陽中脫’은 서로 다른 두 가지 즉 ‘陽從內消’와 ‘陽從外走’의 方面으로 나타난다고 하여 “或有人飲食內傷하면 一身之陽便從內消하여 身表涼하고 四肢冷하고 脈沈細라 若從外走하여 身表熱하고 四肢溫하고 頭重不欲舉하고 脈浮弦하고 按之全無力이라(가령 사람이

12) 胡國臣. 王好古醫學全書-陰證略例.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4. p. 96.

13) 胡國臣. 王好古醫學全書-陰證略例.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4. p. 95.

14) 胡國臣. 王好古醫學全書-陰證略例.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4. p. 80.

15) 胡國臣. 王好古醫學全書-陰證略例.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4. p. 83.

飲冷內傷하면 一身의 陽이 內消하여 身表涼하고 四肢冷하고 脈沉細하게 되니 이것을 陰證이라고 하니 즉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다. 만약 外部로부터 나타나면 身表熱하고 四肢溫하고 頭重不欲舉하고 脈은 浮弦하여 세게 누르면 힘이 없는 것이다.”¹⁶⁾이라고 했다. 病이 厥陰, 少陰에 있거나 혹은 ‘陰氣獨盛 陽氣暴絕’의 ‘陰毒證’을 막론하고, 만약 陽從內消의 현상이 나타나면 그 證狀은 분명히 區別하기 쉽다. 陰證의 ‘陽從外走’ 즉 이른바 ‘內陰外陽證’에 대해서는 대부분 傷寒內感, 三焦氣虛, 陰氣內盛, 陽氣外走의 所致와 관련되어 있다. 그 症狀은 매우 복잡하여 頭痛不甚, 腰腿沈重, 心下滿悶, 腹中疼痛, 自利不渴, 不欲飲水, 嘔噦間作, 倦臥欲寐 등의 內陰證이외에도, 오히려 頭痛壯熱, 兩脇熱甚, 面赤目赤, 肢溫自汗, 혹은 大小便秘, 口乾咽燥, 渴欲飲水, 語言錯亂, 或發斑, 出血 등의 ‘外陽證’을 보일 수 있다. 上述한 증상이 陰陽錯雜하지만, 그 脈象은 모두 沈, 澁, 弱, 弦, 微 등의 다섯 종류의 陰脈으로 나타난다.

종합하면 內陰外陽證은 다만 太陰經證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또한 종종 少陰, 厥陰의 부분 症狀도 동시에 나타나며, 단 身冷과 肢冷은 없고 도리어 熱象을 볼 수가 있다. 上述한 것처럼 陰證의 ‘陽從內消’와 ‘陽從外走’의 두 가지 病證의 病機와 症狀은 반드시 구별해야 한다. 이외에도 王氏는 또한 陰證의 譫語, 失血, 發斑, 自汗, 發厥 등의 症狀을 낱낱이 들어서, 陽熱證과 本質의 으로 같지 않다는 것을 提示하였다. 이러한 辨證方法은 臨床에 있어 매우 지침적인 의미가 있다.

5. 症狀

陰證의 구체적인 症狀에 관하여 王好古는 前人이 陰證에 關聯된 記載를 收集한 基礎에서 자신의 臨床經驗을 결합하여 ‘內傷三陰’의 具體의인 臨床症狀를 제시하였다. 즉 “若病在少陰하면 則有面赤하고 默默不欲語하고 但欲寐하고 或四肢厥逆하고 或身表如冰

石하고 脈沉細라 若病在厥陰하면 則四肢厥逆하고 爪甲하고 面黧目黑色하고 或自汗不止하고 脈沉弦無力라 若病陰毒證은 身表如冰石하고 四肢厥逆하고 體如被杖하고 脈沉細而微하고 或六至以至八至 九至 十至而不可數라(만약 病이 少陰에 있으면 面赤하고 默默不欲語하고 但欲寐하고 或四肢厥逆하고 或身表如冰石하고 脈沉細한다. 만약 病이 厥陰에 있으면 四肢厥逆하고 爪甲하고 面黧目黑色하고 或自汗不止하고 脈沉弦無力한다. 만약 陰毒證이 있으면 身表如冰石하고 四肢厥逆하고 體如被杖하고 脈沉細而微하고 맥박은 여섯 번에서 여덟 번 아홉 번 열 번까지 뛰게 되어 셀 수 없게 된다.)”¹⁷⁾고 하였고, “惟太陰一證은 手足自溫하고 自利不渴하고 尺寸脈俱沉而弱이라(오직 太陰證은 手足自溫하고 自利不渴하고 尺寸脈이 모두 沉弱한다.)”¹⁸⁾ 하였다. 그러나 陰證의 臨床表現은 때로는 아주 複雜하며 一經에 국한되지 않고 二經 혹은 三經의 症狀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고 변화도 더욱 복잡하고 다양하다. 이에 王好古는 ‘陰證始終形狀雜舉’라고 하였다. 따라서 그는 面赤, 手足振搖, 腰腿沉重 등을 陰證의 初期症候로 보아 “若病人面赤者是下虛也오 手足振搖者是 爲元氣無主持也오 腰腿沉重者是 三陰經受寒濕也오 或恐或悸者是 知陰寒之邪在 手足少陰也라 …… 以上初病時에 多有形狀如此等類라(만약 환자가 面赤한 것은 下虛하기 때문이고, 手足振搖한 것은 元氣가 主持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腰腿沉重한 것은 三陰經이 寒濕을 받았기 때문이고, 恐하거나 悸하는 것은 陰寒의 邪氣가 手足少陰에 있기 때문이다. …… 以上은 처음 병이 들었을 때에 이와 같은 症狀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다.)”¹⁹⁾고 하였다. 그리고 身如被杖, 色青黑, 手足踱而臥, 惡聞人與語, 昏昏欲寐, 目白睛而赤 등을 陰證의 末期症候로 보았다. 臨床에 있어서 陰證은 복잡하고 多變한데 王好古가 정리한 結果 條理가 분명해지고 臨床實用에 부합

16) 胡國臣. 王好古醫學全書-陰證略例.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4. p. 98.

17) 胡國臣. 王好古醫學全書-陰證略例.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4. p. 97.

18) 胡國臣. 王好古醫學全書-陰證略例.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4. p. 97.

19) 胡國臣. 王好古醫學全書-陰證略例.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4. p. 101.

하게 되었다.

6. 診斷 및 鑑別

王好古는 陰證의 臨床表現이 複雜하여 診斷을 내리는데 세심하여야 함을 말하였다. 그는 주로 色과 脈의 두 방면으로 三陰證을 辨別하였다. 그는 “若面青黑하고 脈浮沉不一하여 弦而弱者는 傷在厥陰也. 若面紅赤하고 脈浮沉不一하여 細而微者하니 傷在少陰也. 若面黃潔하고 脈浮沉不一하여 緩而遲者는 傷在太陰也라(만약 面青黑하고 脈이 浮沉不一하여 弦而弱한 경우는 厥陰이 損傷된 것이고, 만약 面紅赤하고 脈浮沉不一하여 細而微한 경우는 少陰이 損傷된 것이고, 만약 面黃潔하고 脈浮沉不一하여 緩而遲한 경우는 太陰이 損傷된 것이다.)”²⁰⁾고 하였다. 또한 陰證初期의 主脈은 沉細하고 疾하며, 陰證이 점차 進展되면 六脈이 沉細해지고 一息七至하고, 陰證이 危急하면 六脈을 附骨에서 모두 만져볼 수 있으며 누르면 사라지고 一息八至以上 혹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상기 내용으로부터 보아 王好古가 陰證의 脈象에 대한 論述은 『傷寒論』의 내용을 보충하고 발전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王好古는 診斷에 있어서 脈象을 더욱 중요시하였다. 이에 그는 “大抵前後證變之不同은 以脈別之가 最爲有准이오 不必求諸外證也라(대개 前後의 證候가 變化하지 않는 경우에는 脈으로 구별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니, 外證을 참고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²¹⁾고 하였고, 또한 “活人에 辨證不取諸他하고 而獨取諸脈이라(活人書에서 辨證할 경우에는 脈을 위주로 할 것이지 다른 것을 참고하지 말라.)”²²⁾는 말을 예를 들어 이것이 ‘最爲驗’이라고 주장하였다. 王好古는 診斷에 있어서 脈象을 주요한 근거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轉歸와 預後를 判斷하는데 있어서도 脈象을 근거로 삼았

다. 예를 들면 그는 『潔古老人內傷三陰例』의 말을 인용하여 “氣口緊盛而傷者는 有多少輕重焉하니 如氣口一盛하고 脈得六至하면 則傷於厥陰이니 乃傷之輕也. 檳榔丸主之라 氣口二盛하고 脈得七至하면 則傷於少陰이니 乃傷之重也. 煮黃丸主之라 氣口三盛하고 脈得八九至하면 則傷於太陰하니 乃傷之尤重也라 故填塞悶亂하고 心胸大痛하고 兀兀欲吐하고 得吐則已하니 俗呼爲食迷風이 是也라(氣口脈이 緊盛하면서 損傷된 경우는 多少輕重이 있으니 만일 氣口一盛하고 脈得六至하면 厥陰이 상한 것이니 가볍게 손상된 것으로 檳榔丸으로 主治한다. 만약 氣口二盛하고 脈得七至하면 少陰이 상한 것이니 심하게 손상된 것으로 煮黃丸으로 主治한다. 만약 氣口三盛하고 脈得八九至하면 太陰이 상한 것이니 매우 심하게 손상된 것이다. 그러므로 填塞悶亂하고 心胸大痛하고 兀兀欲吐하고 吐하면 증상이 경감되니 일반적으로 말하는 食迷風을 말하는 것이다.)”²³⁾고 하였다. 그가 寶豐阿磨堆候君輔 縣丞의 語言狂亂하고 肩背胸脇에 癍出十數點하며 肌表熱한 등 症을 치료하였는데 이 증은 陽熱發狂으로 쉽게 착각할 수 있다. 王好古는 그가 脈이 극히 沉細한 것으로부터 陰證으로 판단하고 또한 肌表熱에 대하여 자세히 辨別한 결과 비록 肌表는 손으로 약간 접촉할 때 열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손으로 깊숙이 오랫동안 누르고 있으면 찬 기운이 얼음과 같이 느껴지므로 이 증은 陽熱이 아니라 浮陽인 것이었다고 하였다. 寒凝血滯하여 癍이 微出하였다는 것이다. 만약 脈의 虛實를 판단하는 診斷要點을 파악하지 못하면 작은 착오로 큰 착오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陰證의 病情이 重篤할 때 患者는 妄妄 神識이 不清하고 言語가 混濁한 증상이 나타나지만 脈象은 患者의 表述能力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脈象을 통하여 病情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다. 따라서 王好古는 “學者는 當審獨取諸脈하고 不憑外證可也라(學者는 마땅히 脈을 잘 살펴야 하니 外證을 考慮할 필요는 없다.)”²⁴⁾고 경고하였다.

20) 胡國臣, 王好古醫學全書-陰證略例.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4. p. 77.

21) 胡國臣, 王好古醫學全書-陰證略例.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4. p. 109.

22) 胡國臣, 王好古醫學全書-陰證略例.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4. p. 99.

23) 胡國臣, 王好古醫學全書-陰證略例.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4. p. 76.

24) 胡國臣, 王好古醫學全書-陰證略例.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4. p. 109.

7. 鑒別

어떤 상황에 있어서 陰證은 變證과 假象이 나타나게 되는데 王好古는 이에 대하여 깊이 분석하고 유사한 것을 변별하는 요점을 제시하고 誤診을 면하도록 밝혀 주었다. 그는 “或有人飲冷內傷하여 一身之陽便從內消하면 身表涼하고 四肢冷하고 脈沉細하니 是謂陰證이니 則易知之라 若從外走하면 身表熱하고 四肢溫하고 頭重不欲舉하고 脈浮弦하고 按之全無力이라 醫者不察하여 便與表藥雙解等하여 復使汗出하면 三焦之氣絕하니 以此殺人者가 多矣라(만일 어떤 사람이 飲冷內傷하여 몸의 陽氣가 內消하게 되면 身表涼하고 四肢冷하고 脈沉細하니 이를 陰證이라고 하니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다. 만일 外走하게 되면 身表熱하고 四肢溫하고 頭重不欲舉하고 脈浮弦하고 按之全無力하게 된다. 의사가 이를 잘 살피지 못하고 문득 表藥으로 雙解하여 다시 汗을 내게 하면 三焦 氣絕하게 되니 이로써 사람을 잘못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²⁵⁾고 하였고 陽從內消한 純陰寒證은 쉽게 변별할 수 있지만 陽從外走한 소위 ‘內陰外陽’證은 변별하기 힘들다고 하였다. 身表熱하고 四肢溫한 것은 단지 元陽外脫의 表象이고 脈은 놀려 모두 無力하면 이것은 陽이 아니 脫失한 表現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표면 現象을 통하여 本質을 파악해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解熱藥을 濫用하여 三焦氣絕하는 錯誤를 범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따라서 그는 『陰證略例』에 陰證의 鑒別에 대하여 전력을 기울여 論述하였고, 이 책에 「論資言妄語有陰陽」, 「論下血如豚肝」, 「論陰陽二絡」, 「論自汗分陰陽」 등 二十餘篇에 陰證의 狂言, 小便赤, 小便不通, 大便秘, 發熱, 咳逆, 發渴, 發厥, 遍身青黑, 四肢振搖, 手足自汗, 陰陽易, 霍亂 등 病證의 鑒別에 대하여 闡述하였다. 예를 들면 「陰證發熱」篇에 “太陰厥陰皆不發熱하고 只少陰有發熱二條하니 仲景謂之反發熱也라 少陰始得之에 發熱脈沉者는 麻黃附子細辛湯主之라 少陰病下利清穀하고 裏寒外熱하고 手足厥逆하고 脈不出者는 通脈四逆湯主之라 斷云

大抵陰證發熱은 終是不同하니 須脈沉細하고 或下利하고 手足厥이라(太陰厥陰이 모두 不發熱하고 다만 少陰에 發熱二條가 있으니 仲景이 말한 反發熱을 말하는 것이다. 少陰始得之에 發熱脈沉한 경우는 麻黃附子細辛湯으로 主治하고 少陰病에 下利清穀하고 裏寒外熱하고 手足厥逆하고 脈不出한 경우에는 通脈四逆湯으로 主治한다. 이를 고찰해 보건대 大抵 陰證發熱은 결국은 다르게 되는 것이니 모름지기 脈이 沉細하고 或下利하고 手足厥하게 된다.)”²⁶⁾고 하였다. 그리고 ‘內傷三陰’의 發熱에 대하여 감별을 하였다. 또한 「論陰證發渴」篇에서 “陰證口乾舌燥는 非熱邪侵凌腎經也오 乃嗜欲之人이 耗散精氣하여 真水涸竭하여 元陽中脫하고 飲食傷冷하여 變爲枯陰하면 陽從內消者는 或不渴하고 陽遊於外者는 必渴而欲飲也라(陰證口乾舌燥는 熱邪가 腎經에 침범한 것이 아니고, 嗜欲을 즐기는 사람이 精氣를 모손시켜 真水가 涸竭하여 元陽이 損傷되고 飲食傷冷하여 變하여 枯陰이 되면 陽이 內消로부터 발생한 경우에는 不渴하고 陽이 遊外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渴症이 있으며 물을 마시려고 한다.)”²⁷⁾고 하였다. 종합하여 살펴보면 惡寒怕冷, 欲近衣被, 不思飲食, 下利清穀, 四肢厥冷, 氣怯喜靜, 舌質淡 혹은 靑, 脈沉遲하고 微한 者는 陰證에 속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王好古는 陰證似陽에 대한 感별을 특히 중요시하였다. 그는 “假令身體微熱하고 煩躁面赤하고 其脈沉而微者는 皆陰證也오 身微熱者는 裏寒故也오 煩躁者는 陰盛故也오 面戴陽者는 下虛故也라(가령 身體微熱하고 煩躁面赤하고 其脈沉而微한 경우는 모두 陰證이고, 身微熱은 裏寒하기 때문이고, 煩躁는 陰盛하기 때문이고, 面戴陽은 下虛하기 때문이다.)”²⁸⁾고 하였으며 身熱, 面赤, 煩躁은 ‘似陽’한 假象이고 陰盛裏寒하고 虛陽外越하여 발생된 것이며 脈이 沉微한 것이 그 陰證의 本質을 변별하는 요령이라고

25) 胡國臣. 王好古醫學全書-陰證略例.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4. p. 98.

26) 胡國臣. 王好古醫學全書-陰證略例.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4. p. 103.

27) 胡國臣. 王好古醫學全書-陰證略例.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4. p. 102.

28) 胡國臣. 王好古醫學全書-陰證略例.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4. p. 85.

밝혔다. 종합하여 살펴본다면 陰證은 陽이 밖으로 나가 陰證似陽한 現象이 나타나게 되는데 證候가 比較의 複雜하고 陰陽交錯이 나타난다. 所謂 內陰外陽證은 內陰證이 있고 매개의 三陰證候가 모두 동시에 나타난다. 또한 外陽의 假熱症狀도 나타나는데 그 共通點은 身不冷과 四肢溫한 증상이다. 비록 證候의 陰陽이 錯雜하지만 脈象은 항상 沉, 澀, 弱, 弦, 微 등 陰脈이며 이것은 陰證을 감별하는 關鍵이고 臨床에서 자세히 分辨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은 王好古의 오랜 臨床經驗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8. 辨證論治

王好古는 陰證의 辨證에 있어서 주로 三陰陽虛證에 중점을 두었다. 그는 仲景의 三陰經辨證方法을 參照하여 陰證을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하였는데 즉 發病부위가 厥陰肝經, 少陰腎經 및 太陰脾經인 것이다. 만약 厥陰肝經에 발병하면 四肢厥逆, 爪甲發青, 面黧目黑, 出汗不止, 혹은 消渴, 氣上沖心, 心中疼熱, 饑不欲食, 食則吐衄, 下之則利不止, 혹은 幹嘔吐涎沫, 頭痛 등 症狀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만약 少陰腎經에 발병하면 面赤心煩, 但欲寐, 默默不語, 四肢厥逆, 身表如冰石, 혹은 自利而渴 등 症狀이 나타나며, 太陰脾經에 발병하면 手足自溫, 自利不渴, 혹은 惡心嘔吐, 飲食減少, 短氣羸瘦, 혹은 胸脯滿, 唇青, 手足冷, 少情緒, 혹은 腹痛下爲 瀉泄, 久爲腸澼 등 症狀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것을 바탕으로 그는 方藥에 따라 證의 종류를 구분하였다. 예를 들면 '傷在厥陰'에 當歸歷逆湯, 當歸四逆湯加吳茱萸生薑湯, 吳茱萸湯 등 方證의 다름이 있고, '傷在少陰'에는 真武湯, 四逆湯, 通脈四逆湯 등 方證의 다름이 있으며, '傷在太陰'에 小建中湯, 理中丸 등 方證의 다름이 있다고 하였다. 王好古가 이렇게 以方類證의 형식을 채용한 것은 비록 宋人이 編撰한 方書의 형식을 沿用하였지만 陰證의 복잡한 臨床症候를 더욱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醫者가 더욱 쉽게 辨證할 수 있게 하였다. 후세의 傷寒學派中 '以方類證'한 柯琴과 徐大椿 등에 대하여 영향을 주었다.

9. 治療 및 服藥法

王好古는 陰證의 治療에 대하여 溫補를 偏重하였다. 王好古의 스승인 張元素는 三陰實證에 대하여 '三陰可下之法'을 주장하였고 三陰虛證의 治法에 대하여 소홀한 면이 있었다. 따라서 王好古는 '三陰可補之法'을 강조하였다. 王好古는 仲景의 三陰證治의 啟發下에 內傷三陰陽虛證에 대하여 『陰證略例·海藏老人內傷三陰例』篇에서 각기 理中湯, 通脈四逆湯과 當歸四逆湯으로 太陰, 少陰과 厥陰을 치료하는 主方으로 삼았다. 王好古가 비록 三陰의 用藥으로 구분하였지만 그의 『陰證略例』에 收載한 50여개의 方劑를 살펴보면 그가 脾胃를 溫養하는 것을 더욱 중요시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그가 '腎氣虛寒'의 發病觀을 중요시하였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霹靂散, 正陽散, 火焰散, 回陽丹, 返陰丹 등은 모두 附子를 主藥으로 삼은 溫腎作用이 있는 方劑이고 따로 附子散, 肉桂散, 白朮散 등을 부가한 것은 脾胃雙補하는 方劑이다.

王好古는 朱肱, 許叔微, 韓祗和 등이 陰證을 治療한 方藥들을 잘 總結하고 정리하여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內傷飲冷, 外感風寒 혹은 三焦氣虛 등 證에 대해서도 神朮湯, 白朮湯, 黃茂湯, 調中丸 등 方劑를 만들었으며 또한 臨床에서의 加減法을 附加하였다. 예를 들면 神朮湯으로 內傷飲冷, 外感寒邪無汗을 치료한다고 하였고 그 方劑의 밑에 "太陽寒水司天하면 加桂枝 羌活하고 陽明燥金司天하면 加白芷 升麻하고 少陽相火司天하면 加黃芩 生地黃하고 太陰濕土司天하면 加白朮 藁本하고 少陰君火司天하면 加細辛 獨活하고 厥陰風木司天하면 加川芎 防風이라(太陽寒水司天하면 桂枝 羌活을 더하고 陽明燥金司天하면 白芷 升麻를 더하고 少陽相火司天하면 黃芩 生地黃을 더하고 太陰濕土司天하면 白朮 藁本을 더하고 少陰君火司天하면 細辛 獨活을 더하고 厥陰風木司天하면 川芎 防風을 더한다.)"²⁹⁾고 註明하였다. 이 내용은 비록 運氣를 근거로 설정하였지만 季節과 臨床見證에

29) 胡國臣. 王好古醫學全書-陰證略例.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4. p. 95.

따라 變通하여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王好古가 陰證治療의 辨證思想을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王好古는 陰證을 治療하는데 있어서 服藥方法과 服藥後의 반응을 중요시하였다. 그는 一日中の 陰陽消長規則을 근거로 陰證의 病機는 주로 陰盛陽衰이므로 陰證의 治療에 있어서 夜半以後에 服藥해야 하고 이렇게 하면 藥의 溫熱이 自然界의 陽氣의 도움을 받아 더욱 큰 效用을 發揮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認識은 生物鍾學說과 서로 吻合된다. 따라서 “熱藥冷服은 內有浮陽則可라 若脈已虛하여 按之全無力하고 或病人素無所養하면 只可溫服하니 不然陰氣必不能醞釀回陽하여 利害非輕이라(熱藥을 차게 먹는 것은 체내에 浮陽이 있으면 된다. 만일 脈已虛하여 세게 눌러도 無力하고 혹은 사람이 保養하는 것이 없으면 다만 溫服하여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陰氣가 반드시 醞釀回陽하지 못하게 되니 利害가 가벼운 것이 아니다.)”³⁰⁾고 하였다. 그리고 治療過程中서 服藥後에 나타난 假象에 迷惑하지 말라고 일깨워주었다. 그는 “陰證은 陽從內消하니 服溫熱藥하면 煩躁極甚하여 發渴欲飲하니 是將汗出이라(陰證은 陽이 內消하니 溫熱藥을 복용하면 煩躁가 극심하여 發渴欲飲하게 되니 이것이 장차 땀이 나려는 것이다.)”³¹⁾고 하였다. 이는 陰證은 원래 陽氣虛憊한 것인데 溫熱藥을 복용한 후 陽氣가 회복되기 시작하여 邪氣와 싸워 煩躁口渴의 假熱症狀가 나타나게 되고 이것은 陽氣가 外達하여 出汗하려 하는 현상이며 熱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王好古의 이런 견해는 모두 古人들이 언급하지 않았던 것이고 아주 실용적인 것이다.

또한 王好古는 制方用藥하는데 스스로의 틀을 만들었다. 그는 새로 만든 新方과 古方을 가지고 자유롭게 運用하였는데 독창적인 견해가 자못 많았다. 예를 들어 內傷飲冷에 外感寒邪를 겸한 것을 治療할 때에는 神朮湯을 사용하고, 中霧露하면 神朮加藁本湯과 神朮加木香湯을 사용하고, 만약 內傷冷物에 外感風邪

를 겸하면 白朮湯을 사용하였다. 陰證의 ‘元陽中脫’患者에 대해서는 ‘陽從內消’나 ‘陽從外走’를 막론하고 비록 ‘先緩後急’의 구분이 있으나, 中氣의 斡旋作用을 특히 중시하여, 그 治法에는 ‘調中’을 위주로 할 것을 강조하여, “身冷脈沈하면 服調中藥하여 陽自內之外하니 身體溫和而愈라(身冷脈沈하면 調中藥을 복용하여 陽氣가 내부로부터 외부로 나가게 하니 身體가 溫和하게 되어 낫게 된다.)”³²⁾라 하였는데, 이는 ‘陽從內消’의 治法이고 “脈浮弦細는 服調中藥하여 陽從內生하고 喚入外熱하니 復得脈平溫和而愈라(脈浮弦細한 경우에는 調中藥을 복용하여 양기가 안으로부터 생기고 다시 外熱하게 되니 다시 脈이 平溫和하면서 치료된다.)”³³⁾는 ‘陽從外走’의 治法이다. 이른바 ‘喚入外熱’은 즉 陽氣로 하여금 外走하지 못하게 한다는 뜻이다. 이른바 ‘先緩’은 病情이 비교적 가벼운 內陰外陽證의 治療이니, “藥當從溫, 不可遽熱”³⁴⁾이라고 강조하였다. 그가 스스로 만든 黃芪湯과 調中丸은 緩治劑이다. 만약 病이 위중하여 급히 治療하려면 黃芪湯에 乾薑을 추가거나, 혹은 理中丸로 治療하였으니, 王好古가 陰證을 치료한 특징이 三陰 중에 太陰을 가장 重視함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만약 病이 少陰과 厥陰에 들어가면 調中藥내에 附子를 사용하지만, 단 이때에도 아직 太陰에서 떠나지는 않았으므로 處方은 여전히 調中을 기초로 한다. 만약 病情이 더욱 심하게 발전하면 四逆湯, 眞武湯, 通脈四逆湯 등의 方劑를 사용하여 치료한다. 陰證에 四逆湯을 복용한 후에 胸中이 發燥하고 渴症이 생기며, 大小便秘가 있는 경우에는, 王氏는 海藏己寒丸을 써서 治療했다.

10. 預後와 轉歸

陰證의 預後와 轉歸에 대하여 王好古는 病變과 發展으로 分析하였으며 이에 그는 “外感者는 先太陽하

30) 胡國臣. 王好古醫學全書-陰證略例.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4. p. 95.

31) 胡國臣. 王好古醫學全書-陰證略例.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4. p. 97.

32) 胡國臣. 王好古醫學全書-陰證略例.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4. p. 98.

33) 胡國臣. 王好古醫學全書-陰證略例.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4. p. 98.

34) 胡國臣. 王好古醫學全書-陰證略例.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4. p. 98.

고 次陽明하고 次少陽하고 次太陰하고 次少陰하고 次厥陰이오 內感者는 先三陰而無定하고 次少陽하고 次陽明하고 次太陽하야 爲極高之分이라(外感은 먼저 太陽經에 들어가고 다음 陽明 少陽 太陰 少陰 厥陰의 순서로 轉變되고, 內感은 먼저 三陰으로 들어가고 다음으로 少陽 陽明 太陽으로 들어가 나누어진다.)³⁵⁾ 고 하였다. 그는 『傷寒論』에 闡述한 外感陰證은 먼저 太陽으로 가고, 다음은 陽明, 少陽, 太陰, 少陰, 厥陰의 順序로 表로부터 裏로 진입한다고 하였고 인식하였다. 그러나 內傷陰證은 먼저 三陰에 나타나고, 다음으로 少陽, 陽明, 太陽의 順序, 혹은 裏證이 없어지면 病情이 좋아지고, 혹은 六經同病하거나, 혹은 表裏同病하고 元陽이 中脫하여 병이 危急해진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內傷陰證은 먼저 陰經을 침범하고 病變狀況은 사람에 따라 다르며 三陰의 어느 한經에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病機와 轉歸는 傷寒外感과 같으며 不傳經, 順傳經, 逆傳經 등 구별이 있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三陰에서 少陽, 陽明, 太陽으로 轉變되면 順傳에 속하고 預後가 양호하며 반대로 太陰에서 少陰, 厥陰으로 發展되면 逆傳에 속하고 병이 危重해진다고 하였다.

그리고 陰證의 호전하는 추세에도 각종의 臨床表現이 있는데 만약 傳經하지 않으면 無汗하며 緩解되고 順經으로 傳하면 出汗하며 緩解된다고 하였다. 또한 溫熱藥을 복용한 후 下氣하여 病解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였다. 그리고 王好古는 服藥 후의 反應에 근거하여 陰證의 轉歸와 預後를 잘 판단하였다. 이에 그는 “陰證은 陽從內消하니 服溫熱藥하면 煩躁極甚하야 發渴欲飲하니 是將汗也로대 人不識此하고 反以爲熱하니 誤矣라 熱上沖胸할새 服溫熱藥하야 煩躁少寧이로대 反不欲飲하니 中得和也라 人若識此하야 續湯不己하면 愈矣라(陰證은 陽이 內消하니 溫熱藥을 복용하면 煩躁가 극심하여 發渴欲飲하게 되니 장차 땀이 나게 될 것이로대 사람들이 이를 잘 알지 못하고 도리어 熱이라고 생각하니 잘못된 것이다. 熱上沖胸할때에 溫熱藥을 복용하면 煩躁가 조금 편안해 지

지만 도리어 물을 마시려하지 않으니 中和를 얻었기 때문이다. 만약 사람이 이를 알아 계속 약을 먹게 하면 치료될 것이다.)³⁶⁾고 하였다.

Ⅲ. 結 論

王好古가 主唱한 陰證에 대하여 『陰證略例』를 중심으로 연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王好古가 주장한 陰證은 傷寒에서 太陰, 少陰, 厥陰의 三經이 內感되어 나타나는 三陰陽虛證을 말하는 것이며, 內感陰證도 外感을 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飲食冷物과 誤服涼藥 및 口鼻로부터 霧濕의 氣를 흡입하여 발생된 內感陰證에 대한 내용도 補充하여 陰證의 범주를 크게 확대하였다.

2. 陰證의 原因으로는 外感風寒과 冷物傷脾의 外因과 飲食生冷, 過服涼藥, 口鼻를 통한 霧露雨濕의 侵犯 등의 內因과 房室縱欲의 不內外因이 있다고 하였으며, ‘內傷三陰’하게 되는 데는 ‘陽從內消’와 ‘陽從外走’의 두 방면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하였다.

3. 陰證의 臨床表現은 때로는 아주 複雜하며 一經에 국한되지 않고 二經 혹은 三經의 症狀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고 변화도 더욱 복잡하고 다양한 것으로 초기에는 面赤, 手足振搖, 腰腿沉重 등이 나타나다가 末期에는 身如被杖, 色青黑, 手足踈而臥, 惡聞人與語, 昏昏欲寐, 目白睛而赤 등의 症狀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陰證의 診斷에 있어서는 色脈을 잘 살펴야 하는데 특히 脈으로 정확한 診斷을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4. 王好古가 使用한 處方을 살펴보면 溫腎作用이 있는 霹靂散, 正陽散, 火焰散, 回陽丹, 返陰丹 등을 사용하였고, 脾腎雙補하는 附子散, 肉桂散, 白朮散 등도

35) 胡國臣. 王好古醫學全書-陰證略例.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4. p. 105.

36) 胡國臣. 王好古醫學全書-陰證略例.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4. p. 97.

사용하여 腎氣虛寒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그는 神朮湯, 白朮湯, 黃茂湯, 調中丸 등의 方劑를 새롭게 만들어 사용하여 다양한 方劑를 사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參考文獻

1. 胡國臣. 王好古醫學全書-陰證略例.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4.
2. 洪元植, 尹暢烈. 新編中國醫學史. 大田. 周珉出版社. 2004.
3. 胡國臣. 王好古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4.
4. 金達鎬, 李鍾馨. 補注解黃帝內經素問. 서울. 醫聖堂. 2001.